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이양품(利養品) ②

夫欲安命 夫欲安命
息心自省 息心自省
知藏藏穴 知藏藏穴
潛藏潛藏 潛藏潛藏

무릇 제 명에 편안코자 하거든
생멸심 쉬고 스스로를 살피되
취가 구멍에 물을 숨기는 것 같이
고요히 은둔하여 가르침 익혀라

約利約耳 約利約耳
奉戒思惟 奉戒思惟
爲慧所稱 爲慧所稱
清吉勿忽 清吉勿忽

이양을 단속하고 귀를 단속해
계을 받들어 고요히 생각하면
지혜롭다 기림 받으리니
맑고 좋은 것 게을리하지 말라

如有三明 如有三明
解脫無漏 解脫無漏

미워함은 먼저 나 해치고 남도 해친다 계을 받들고 맑고 좋은 것 게을리 말라

寡難辭識 寡難辭識
無所憶念 無所憶念

만일 세가지 밝음(숙명·천안·누
진)이 있으면

벗어나 번뇌 없을 것이다
온갖 알음알이 적게 하여
잊혀지지 않는 생각 없게 하라

其於食飲 其於食飲
從人得利 從人得利
而有惡法 而有惡法
從供養緣 從供養緣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는
남을 좇아 이익 얻지만
거기에 나쁜 법이 있다면
공양에 따라서 미움을 기르게 된다

多結惡利 多結惡利
強服法衣 強服法衣
但望飲食 但望飲食
不奉佛敎 不奉佛敎

원광과 이양에 많이 맺히면
역지로 법복을 입었지만
다만 바라기는 먹고 마시는 것뿐
부처님 가르침은 받들지 않는다

當知是過 當知是過
養爲大畏 養爲大畏
寡取無憂 寡取無憂
比丘釋心 比丘釋心

마땅히 이 허물 알아야 한다
이양은 크게 두려워 할 것이니
적게 취하여 근심 없으면
비구는 곧 마음 깨닫는다

非食命不濟 非食命不濟
孰能不嗔食 孰能不嗔食
夫立食爲先 夫立食爲先
知足不直嫉 知足不直嫉

먹지 않으면 목숨 부지 못하니
누군들 능히 먹는걸 해아리지 않
라

무릇 먹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니
이 이지 알아서 질투하지 말아라

嫉後創已 嫉後創已
然後創人 然後創人
擊人得擊 擊人得擊
足不得除 足不得除

미워함은 먼저 나를 해치고
연후에 남을 해친다
남을 때리면 나도 얻어 맞으니
이것은 미움을 없앨수 없다

寧端燒石 寧端燒石
吾飲洋粥 吾飲洋粥
不以無戒 不以無戒
食人信施 食人信施

차라리 불에 달군 돌을 먹고
구리 쇠를 마실 지언정
계행이 없으면
남의 믿음어린 보시를 먹지말라

其於食飲 其於食飲
從人得利 從人得利
而有惡法 而有惡法
從供養緣 從供養緣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는
남을 좇아 이익 얻지만
거기에 나쁜 법이 있다면
공양에 따라서 미움을 기르게 된다

사문품(沙門品) ①

端目耳鼻口 端目耳鼻口
身意常守正 身意常守正
比丘行如是 比丘行如是
可以免眾苦 可以免眾苦

눈·귀·코·입을 단정히 하고
몸과 뜻을 항상 바르게 지켜라
비구가 이와같이 행하면
그로써 온갖 괴로움을 면할 수 있
리라

龍眼

종성 스님 (임제선원장)

“마음이 우주의 근본이다.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 옹당 우주의 본성을
살펴보니 일체가 오직 마음 하나로 만들
어졌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화엄경〉 법문은
팔만대장경의 핵심이며 골자입니다. 유물
론에서는 물질이 근본이라 하여 유기적
정신작용도 무기적 물질(無機的 物質)이
고도로 발전한해서 나오는 것이라 하니
과학적 인과법칙 용에서도 크게 불합리
한 사상입니다. 무기적 물질은 아무리 발
달을 해도 물질이지 유기적 정신체가 나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
서는 이러한 사상을 뒤집어서 물질이나
정신의 근본이 한 다음이니 물질과 마음
이 불이 아닌, 색공백이(色空不二) 색심
일여(色心一如)의 도리를 설하신 것입니
다.

법법은 바로 이 마음도리를 이론만이
아니고 실제로 깨닫는 진리입니다. 그러
므로 부처님께서는 이 도리를 깨닫고서
선언하시되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고,
유정 무정이 모두 부처를 이룬다(一切
衆生 悉有佛性 有情無情 悉皆成佛)”고
하셨습니다.

후대의 조사스님들도 이 진리를 깨달
아 증득하신 것이니 조동종의 유명한 천
동정각(天童正覺) 선사께서는 그의 〈육
조명·跋難陀論〉에서 “일체 만상삼라가 광
명을 내며 설법하고 있으니 각각 서로
증명하여 밝고 맑게 드러났다” 하시고,
유명한 송나라 때의 대문호 소동파 기사
도 이 마음도리를 실제로 깨달고 오도송
에서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 설법
이요, 푸른 산빛은 어찌 부처님의 청정법
신이 아니라. 깊은 밤에 깨달아 얻은 팔
만사천 도리를 뒷날 어떻게 다른 사람에
게 알려줄까?(鑄聲便是長廣說 山色豈非
清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學似
人)”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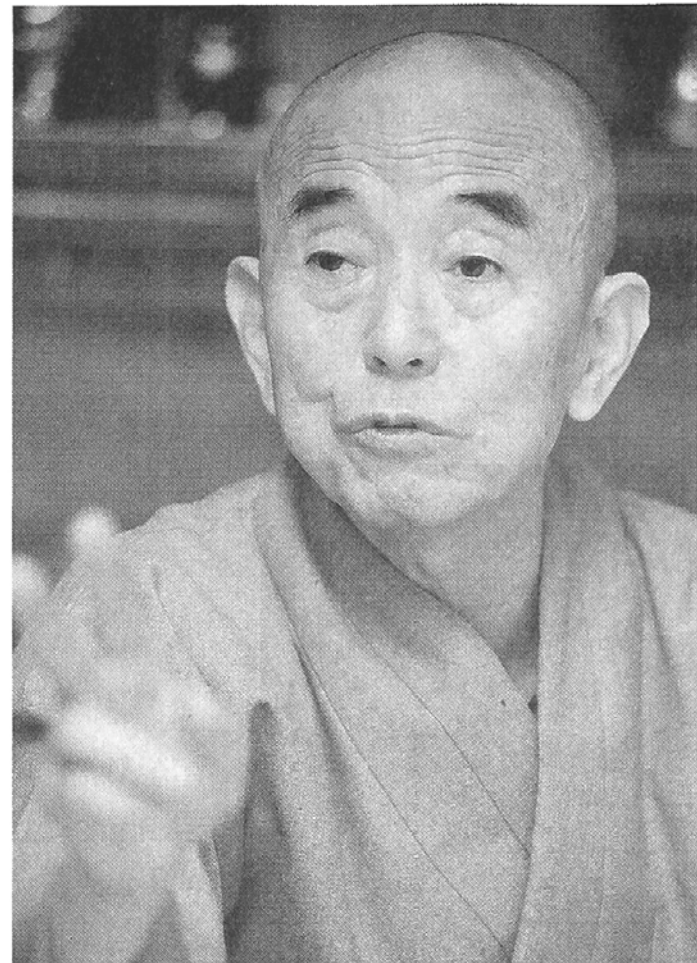
나는 출가 전 세속에서 부처님의 마음
법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 이치적으로
는 크게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우주만유와 유정 무정의 근본이
며, 초목와석과 산하대지가 방광설법(放
光說法)을 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의심이 끊이
지 않았습다.

그래서 선서(禪書)를 읽기 시작하였습
니다. 보조국사의 〈수심경〉과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등에서 ‘이 마음은 텅 비어서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고, 죽어서 꺾
지지 않고, 초롱초롱 살아 있다(空寂靈知
惺惺寂寂)’고 하신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일부러 짓는 마음이

지 저절로 생성적절한 본래의 마음은 아
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심히 가슴이 답답
하고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칠일
참야를 대의심삼매(大疑心三昧)에 들어
식음을 전폐하였으니, 타고난 약체인지라
신체의 수기(水氣)가 마르고 화기(火氣)
가 치성하여 머리는 불명이 같고 눈에서
는 불이 왔다갔다 하는 대열병을 앓았습
니다. 이때 일본 임제종의 중흥조이신 백
은선사(白隱禪師)도 참선중에 이런 병에
로 고생하셨음을 알고 일본의 선승 야마
다 레이링(山前靈林)이 쓴 〈선학독본〉을
읽었습니다. 참선중에 상기가 될 때는 가
만히 기운을 내려서 단전에 화두를 들고
조식(調息)으로 지관타좌(只管打坐)를
하라는 구절을 읽고, 이와 같이 앉아서
딱 숨 한 번 들이쉬는 할나, 지금까지의
참통 같은 큰 의심이 타파되었습니다.

이때가 출가 전인 25세 때의 일이었으
니, 홀로 우주의 근본인 마음의 문제에
스스로 의심을 품고 7일만에 그 의심을
타파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어느 누구에

· 1930년 전북 무안 소
· 전주고등학교를 나와 원광대학
교에서 불교학 전공
· 1968년 백양사에서 서용스님을
은사로 득도
· 現 임제선원에 주석
·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辨〉 등
논저 다수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 우주의 본성은 마음 하나로 만들어졌다’ 화엄경 법문은 대장경의 핵심입니다

게서도 화두참구법을 배운 일이 없었지
만 알고보니 조사스님들의 화두법과 똑
같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선지식의 지
도를 조금만 받았다면 그런 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로 세간에서 임운자재(任運自在:
모든 일에 사로잡힘 없이 정진함)하게
지내면서 조사어록과 경전을 두루 섭렵
하던 차 인근의 효산(曉山)스님이 변산
내소사 서래선림(西來禪林)에 해안(海
眼)선사라는 선지식이 계시니 친견하도
록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선사를 찾아보
니 일견에 선종도공의 도인 기풍이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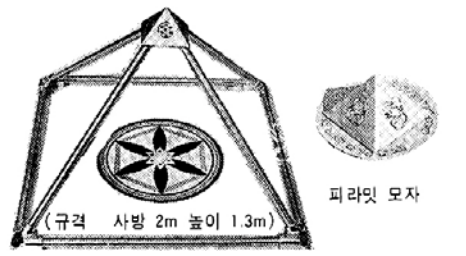
으며, 문장과 강경설법에도 능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선사께 입실하니 선사께서는
“임제선사가 30방을 갖고 깨친 소식이
무엇인가?” 문기에, 얼얼히하여 무어라고
답하였더니, 선사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인가하시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세간에 있으면서도 큰 공부를 성
취하였는데, 너희들은 무엇하느냐”며 경
책하시었지요. 그후 선사만 기거하는 서
래선림의 토굴에 여러 날 유숙토록 권유
하시며 전법계를 주시고, 선사께서 강의
하신 〈금강경〉 원고를 교정하여 서문을

쓰고 출판까지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러나 당시 나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원고만 교정해 보내드리고 출판까지는
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후 나는 제방의 선지식을 친견하고
출가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효산스님
이 “만안대종사의 사법제자(嗣法弟子)로
서 동진비구로 당대 대선지식이신 서용
선사(당시 법명은 石虎禪師)께서 일본에
서 귀국해서서 전한 장성의 백양사에 주
석하고 계신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성취하고 인정을 받은 터라 거리
낌없이 서용선사를 찾아 보니 화형(鶴
形)의 자태에 눈빛은 늙름하게 빛났습니
다. 입실하여 문답하니 선사께서 “깨침이
아직 구경처(究竟處)는 아니니 조금 더
공부하라”는 것이었지요. 이에 나는 일본
선사들의 예까지 들어가며 공부경지를
괴려하였으나, 선사는 “아니야, 아니야
”라며 허락치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 공부를 깊이 반성하며 선사의 지시를
거역치 않고 더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비한 우주 에너지(기)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미트 히란야!



〈특허청 의장특허 등록 NO.204454〉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원 NO.1822, 1823, 1824

- ◆ 피라미트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
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
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 ◆ 의약품을 놓아두면 약성이 증대
되고 부작용이 제거된다.
- ◆ 인체에 유해한 수백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한국 피라미트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 도서출판 좋은인연 -
053)475-3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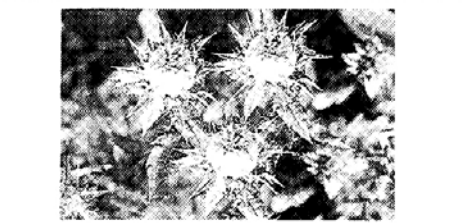
우학 스님의 책

- ▶ 삼천배 삼전부 적심(삼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삼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 새! 온 불교 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 불자 5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 불교 EQ ①②
- ▶ 불교 한자 시미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과정문, 중도가 외 다수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 난치병 치료 ◆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약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치료됨

※ 당뇨 동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지신왕기환(治身旺氣丸)

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이백여년전 당나라 선도의술(仙道醫術)의
의성(醫聖) 주진형의 놀라운 비방약인 기적의 치신
왕기환(治身旺氣丸)은 사향·호골(虎骨)·인삼·
막하수오·적화수오·원방풍 외 30여종의 약재로
만들었으며,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장육부
의 치료, 중풍·근육의 모든 통증 및 마비증·당뇨
병·소화불량·심장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하며,
복용할수록 정수(精水)가 풍부하게 생겨서 왕성한
정력이 솟아남으로 회춘(回春)이 되고 피부도 윤택
해진다.

■ 진 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053) 628-9145
(053) 655-3027

대구여래한방